



아무도 찾지않는다... 94승 니퍼트 '강제 은퇴' 위기

통산 94승을 올린 더스턴 니퍼트는 단 1년전까지만 해도 KBO리그를 지배하는 특급 에이스였지만 갈 팀이 없어 강제 은퇴 위기를 맞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남은 4개팀 중 NC·삼성·kt 계획 없어 가능성 있는 팀은 LG뿐...나이 걸림돌 희망연봉 낮춰지만 외면...채취업 난항

더스턴 니퍼트(36)는 KBO리그 통산 94승 투수다. 2010년대 중반 두산의 전성기를 상징한다. 그러나 니퍼트가 마운드에서 투구하는 모습은 2017시즌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강제 은퇴가 눈앞이다.

최근 각 구단에서는 니퍼트가 희망 연봉을 크게 낮췄다는 이야기가 돌린다. 그러나 니퍼트를 영입 후보 리스트 상위권에 남겨둔 구단은 없다. 일부 구단은 3~4순위까지 협상에 실패했을 때 보험용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KBO리그 10개 팀 중 외국인 투수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팀은 NC, LG, 삼성, kt까지 4곳이다.

이중 NC는 니퍼트와 계약 가능성이 사실상 0%인 구단이다. NC는 올 시즌 종료 직후 각각 12승을 올린 에릭 해커, 제프 맨섭과 결별했다. 김경문

감독은 "훌륭한 투수들이지만 더 높은 목표를 위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미 계약한 로건 베퀴(27)은 80만 달러에 사인했다. 협상중인 다른 외국인 선수는 더 몸값이 높은 에이스 후보다.

삼성은 공개적으로 "니퍼트 영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105만 달러에 영입한 팀 아델만(30)에 이어 다른 후보군과 접촉 중이다.

외국인 에이스로 떠오른 라이언 피어밴드(32)의 파트너를 찾고 있는 kt의 후보 리스트에도 니퍼트는 없다. 남은 팀은 데이비드 허프(32)와 계약을 실패한 LG뿐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남아

있는 팀이다. 류중일 LG 감독은 삼성시절 외국인투수만큼은 기교파가 아닌 강속구를 던지는 '파이어볼러'를 선호했다. 그러나 LG역시 올 시즌 후반기 극도의 부진에 빠진 니퍼트의 내년 시즌 나이 '만37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니퍼트는 텍사스에서 2010시즌을 마치고 연봉조정신청 자격을 획득하자마자 방출됐다. 3년간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가며 마이너리그 옵션을 모두 소진했음에도 텍사스는 잔류를 원하지 않았다. 결국 텍사스를 떠난 니퍼트는 일본 요미우리과 접촉했지만 계약에 실패했다. K

BO리그로 전회해 KIA와 경쟁에서 승리한 두산 유니폼을 입었다. 만30세 시즌인 2011년부터 KBO리그에서 던질 수 있었던 배경이다. 7시즌 동안 2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함께했고 94승을 올렸다.

니퍼트는 여전히 150km의 빠른 공을 던진다. 그러나 프로야구 선수의 나이는 숫자 그대로 '리스크'의 크기를 나타낸다. 각 팀에 자리가 2개 뿐인 외국인투수라는 태생적 한계 탓에 결국 더 이상 갈 팀이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박한이 너무 추운 겨울...재계약은 언제쯤?

(삼성)

올해 68경기 타율 0.263·4홈런 부진 삼성과 재계약 연봉인상 기대 힘들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수입니다."

삼성 흥준학 단장은 올해를 마무리하며 2018년의 전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말을 계속 반복했다.

연급의 대상은 바로 박한이(38)였다. 박한이는 2001년 삼성에 입단한 이래 올해까지 오로지 사자군단에서만 17년을 보낸 베테랑 자원이다. 통산 2000안타, 16년 연속 100안타 등 그가 푸른 유니폼을 입고 만든 대기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삼성에는 무려 7번의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안겼고, 두 번의 프리에이전트(FA) 기회에서도 모두(1년 6억5000만원, 4년 28억 원) '합리적'인 가격에 잔류하며 '착한이'라는 별명까지 만들었다.

그런 그에게 차갑게만 느껴질 수 있는 계절이

다가왔다. FA 마지막 해인 올해에 부상과 부진을 거듭하며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 박한이는 올해 68경기에 나서 타율 0.263, 4홈런, 14타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17년의 세월 속에서 가장 적은 경기를 소화하며 남긴 성적이었다.

40에 가까워진 나이, 리빌딩에 들어선 팀 구조 등 그에게는 여러 악조건까지 겹쳤다. 향간에는 '은퇴'가 가까워졌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구단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베테랑의 경험이 팀 리빌딩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구단 고위 관계자는 "박한이는 올해를 끝으로 이전 계약이 종료된다. 연봉 재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계약을 새롭게 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FA 계약기간이 끝난 후 연봉 재계약을 맺었던 KIA 김주찬과 비슷한 사례다. 다만 상황은 많이 다르다. 김주찬은 2016년에 '커리어하이'를 찍은 뒤 1년 후 FA 가능성까지 고려



박한이

해 연봉이 1억 원이나 상승(5억 원→6억 원)했다. 박한이는 2017년 활약이 크지 않았던 만큼 연봉 인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금 이를 악문 베테랑 맹수의 겨울나기가 사자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나성범의 겨울방학 계획표 "훈련 NO, 잘 쉬자"

(NC)

12월 휴식...가족과 소중한 시간 내년 1월2일부터 개인훈련 시작

프로야구 선수들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급여'를 받지 않는다. 연봉은 2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참가활동기간'에만 지급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2개월 동안 단체훈련은 금지된다. 그러나 답답한 휴식만 가득한 시간은 아니다. 연봉협상을 해야 하고 각종 행사도 많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현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특히 거의 대부분 선수들은 12~1월에도 개인 훈련을 한다.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날씨가 따뜻한 해외에 개인캠프를 차리고 열심히 운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나성범(28·NO)의 12월은 특별하다. '아들과 놀아주고 잘 먹고 잘 잔다' 나성범의 12월 계획이다. 개인훈련 계획을 묻자 "12월은 없다"라는 답이 돌아온다.



나성범

나성범은 "비 시즌 동안 여러 루틴을 시험해봤다. 겨울 내내 개인훈련을 한 적도 있었다. 지난해 시즌이 끝난 후 처음으로 12월 한 달 동안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고 푹 쉬었다. 체력적으로 큰 도움이 된 선택이었다. 대만족이었다. 올해도 지난해와 똑같은 루틴대로 12월을 보낼 계획이다. 아이와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운동은 1월 2일부터 시작이다"고 말했다.

나성범은 2017시즌 5월 말 수비 도중 손목 부상을 당해 약 20일간 엔트리에서 제외됐지만 데뷔 이후 가장 높은 타율 0.347(173안타)를 기록했고 24홈런 99타점으로 제 몫을 다했다. "내년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시즌을 완주하겠다. 동료들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고 모두 함께 상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다짐했다.

이경호 기자

배구

역사가 된 이효희...V리그 첫 '1만3000세트'

세트가 득점으로 연결된 지표 '높은 가치' 도로공사, 흥국생명전 폴세트 골 역전승



이효희(37·도로공사)는 V리그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세터다. 17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7~2018 V리그' 흥국생명전에서는 V리그 최초 1만3000세트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남녀부 통틀어 최초 기록이다. 이는 단순히 오랫동안 뛰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기록이 아니라 그 가치가 엄청나다.

이효희는 이날 2세트 7-5에서 동료 박정아가 쿼오픈 득점에 성공하며 통산 1만3000세트를 채웠다. 세터의 기록 가운데 세트는 흔히 말하는 토스다. 세터의 토스워크에 따라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배구계 속설을 고려하면, 세트는 세터에게 요구되는 제1의 가치인 것이다. 공격수가 이를 득점으로 연결해야만 세터의 기록이 올라간다는 점은 배구에서 세터와 팀플레이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효희가 세팅해준 볼 가운데 1만3000개가 득점과 연결됐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팀의 득점으로 연결됐다는 지표인 '세트 정확'은 '세트 시도'와 다르다. 이효희는 '세트 정확'만 1만3000개를 해낸 것이다.

이효희는 이날 2세트가 끝난 뒤 기록상 사상

을 위해 코트 중앙에 섰다. 그러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자신의 기록보다 팀이 세트스코어 0-2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신경 쓰였을 것이다. 경기 전까지 통산 세트정확 1만2984개로 V리그 최초 대기록(1만3000 세트정확)에 16개만 남겨뒀지만, 순위싸움이 한창인 상황에서 팀의 승리만 바라보며 싸우야 했던 터라 기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단지 자신의 토스가 득점과 연결되는 그 자체에 의미를 뒀다. 이효희는 늘 그랬다. 공격수의 타점을 살리는 것은 기본이었다. 리시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도 허투루 울리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세터다.

이날도 그랬다. 공교롭게도 도로공사는 이효희가 기록 달성 시상을 마친 뒤부터 힘을 내기 시작했다. 3세트 막판 18-23까지 끌려가며 셋아웃 패배의 위기에 몰렸지만 연달아 7점을 따내며 흐름을 바꿨다. 3세트서 잠시 숨을 고른 이효희는 4세트에만 53.85%(24시도 16성공)의 세트정확도를 자랑했고, 폴세트 역전극을 이뤄냈다. 도로공사는 세트스코어 3-2(23-25 22-25 25-23 25-17 15-8)로 승리하며 7연승과 더불어 선두(승점 31)를 유지했다. 경기에 앞서 "기록 달성하고 지면 안 되는데"라고 걱정하던 도로공사 구단관계자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이효희 총 48개의 세트정확을 기록했다. 개인통산으로 1만3032개가 됐다.

인천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도로공사 베테랑 세터 이효희(5번)가 17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7~2018 V리그' 흥국생명전에서 리그 최초 통산 1만3000세트 대기록을 세웠다.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